

“임산부에 자리 양보를”… 광주 지하철 따뜻한 ‘배려’

출근길 만석에도 임산부석 ‘공석’
음성안내시스템 도입 긍정적 반응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목적
설문 결과, 음성 안내 찬성 74.9%
“자리 비워두는 시민의식 인상적”

“고객님께서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 습니다. 임산부가 승차하면 자리를 양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송정공원에 열차가 들어서자 출근길 승객들이 탑승하며 빈자리가 있는지 살폈다. 열차 안은 어느새 승객들로 붐비며 좌석이 빠르게 채워졌다. 그러나 분홍색 시트의 임산부 배려석만은 예외였다. 출근 시간 시민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데도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뒀고, 자리에 앉지 못한 승객들은 한쪽에 서서 이동했다. 이날 열차에 설치된 모든 임산부 배려석에는 단 한 명의 승객도 앉지 않았다.

임산부 배려석 위에는 검은색 스피커가 눈에 띄었다. 승객 한 명이 자리에 앉자 적외선 센서가 감지, 잠시 후 “고객님께서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고 승객은 민망한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해외에서 대학을 다녀 오랜만에 광주를 찾은 승객은 임산부 배려석 음성 안내 시스템을 보고 신기한 기색을 내비쳤다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들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둔 채 좌석에 앉아 있다.

다.

안모(22)씨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안내 음성까지 나오는 건 처음 봤다”면서 “단순하게 자리만 마련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세심히 신경쓴 것 같아 돋보인다”고 말했다.

최모(71)씨는 “배려석인지 모르고 자리에 앉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평

소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산부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자리를 비워두는 시민 의식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임산부와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설문조사’ 결

과, 임산부의 92.3%가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7.6%는 이용 시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로 ‘일반인이 자리에 앉은 뒤 비켜주지 않아서’가 73.1%로 가장 높았다. 또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일반인 응답자 73.1%가 ‘비워두어야 한

다’고 답했다.

지하철과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선 가운데 광주교통공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도 음성 안내 시스템을 칭찬한다는 글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를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3년 광주 시민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 음성 안내 시스템 확대 설치 찬·반 여부 및 안내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을 74.9%를 기록했다.

도입 초기에 자체 개발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센서 오작동 및 안내 음성이 반복 송출됐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보완을 거쳐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광주교통공사관계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직원들이 고안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음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모든 열차에 한 칸당 2개씩 설치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보행자 치고 20분 방치… 전직 보건소장 실형 선고

화순 한 도로서 보행자 치어 사망
즉각적인 신고나 구호 조치 없어
유족측, 유기치사 혐의 적용 요구
검찰, 교통법치사로 금고 3년 구형
재판부 “비상식적”… 금고 4년형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20분 넘게 구조조치 없이 방치한 전직 보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2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골다리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보건소장을 지낸 A씨는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하

천으로 내려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는 등 구조와 무관한 행동을 했다.

119 신고는 사고 발생 17분이 지난 오후 10시19분께 이뤄졌고,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사고 20여분만에 끝내 숨졌다.

해당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유족 측은 “제때 구호 조치만 이뤄졌어도 살 수 있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보건소장을 지낸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

부적절한 하천물을 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후송이 지연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지금까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최근 형사공판한 2억원도 유족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돈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피해자는 평소 사회봉사를 많이 한 분으로 유족 탄원서에도 언급돼 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책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유족들이 제기한 유기치사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 이하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전남 화순 창고서 불 13분만 완진

전남 화순 한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화순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9분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9명을 투입

해 13분만에 불을 완전히 꺾었다.

이 불로 창고 1동이 전소되고 1톤 트럭이 일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6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승우 기자

여수 해상서 외국인 남성 2명 빠져… 해경 구조로 생환

전남 여수시 해상에서 외국인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으나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무사히 구조됐다.

1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수변공원 인근 해상에서 “한 명이 바다에 빠져 헤엄치고 있고, 다른 한 명이 그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물에 들어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와

구조정을 급파, 익수자 2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는 모두 외국인 남성으로, 이 중 1명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인계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물에 들어가기보다는 즉시 119나 해경에 신고하고 주변 구조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진도항서 일가족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 구속 송치

생활고와 임금 체불 수사 압박에 시달리던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가족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은 차량 침수로 숨졌고, 차량에 물이 들어차자 공포를

느꼈던 지씨는 열려있던 차량 창문을 통해 홀로 탈출했다. 그는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4시간을 머문 뒤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지씨는 이튿날인 2일 오후 한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 형의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후 약 44시간 만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작업

반장 역할을 했던 지씨는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2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당국의 임금체불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씨는 동갑인 아내 김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우 기자

곡성서 연쇄 교통사고… 70대 운전자, 구급차 치여 숨져

SUV와 트랙터 추돌 후 2차 사고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70대 운전자와 50대 트랙터 운전자가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11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2분께 곡성군 곡성읍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트랙터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몰던 50대 남성 A

씨가 크게 다쳤다.

이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SUV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이어졌다.

B씨는 구급차에 치인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트랙터 운전자 A씨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승우·곡성·김대영 기자